

비트코인, ETF 기대감에 40% 급등... 제도권 편입 '성큼'

국내 5개월 만에 7000만원선 돌파 해외는 6만 달러... 39% 이상 올라美, 이번주 내 선물 ETF 승인 전망 국내 코인 거래대금도 덩달아 급증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들쭉이 있다. 이달 들어서만 40% 가까이 급등한 가운데 글로벌 개당 거래가격은 6만1000달러, 국내에서는 7500만원대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가상화폐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비트코인은 6만1127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이달 초만 하더라도 4만3000달러에 거래됐으며, 보름넘는 기간 동안 39%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날에는 6만3000달러선까지 접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스시스

근했다가 하락했다.

국내 거래가격도 5개월만에 7000만원선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

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빙썸에서 지난 1일 5350만원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같은 시각 7505만원에 거래되면서

40% 넘게 급등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번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SEC가 자산관리업체 '프로슈어'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5일 5명의 위원이 회의를 통해 프로슈어의 ETF를 승인했으며, 이르면 18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승인 가능성이 거론되는 ETF는 현물 가격이 아니라 선물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ETF다. 선물 ETF라는 점에서 현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제도권 편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분석이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승인된 ETF는 선물을 구매하는 상품으

로, 비트코인 현물가격에 미칠 영향은 현물 ETF보다는 낮을 것"이며 "제도권 편입이 불가능해 보였던, 비트코인이 점차 제도권 편입의 기미가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 연구원은 "선물 ETF 승인으로 제도권 편입의 역사적인 첫발을 뗐으며, 결국 현물 ETF도 시간문제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트코인의 ETF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대금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코인게코 통계에 따르면 업비트, 빙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일 오전 11시 기준 24시간 동안 거래대금은 20조원을 웃돌았다. 이달 들어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일일 거래대금 평균이 13조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증시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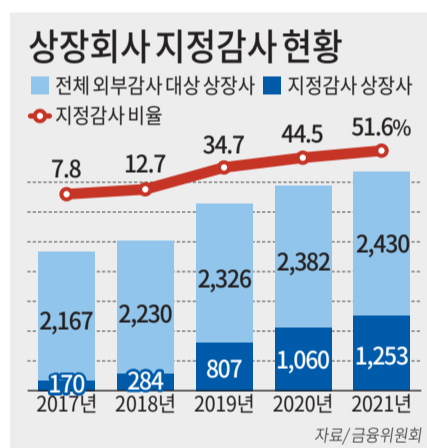
상장사 절반 감사인지정... 금융당국, 회계 감독 강화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 마련 감사서비스 품질·투명성 향상 제고 부당행위 발생시 엄중 문책하기로

앞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감사인을 지정받는 상장회사가 증가하는 만큼 감사보수·시간·서비스에 대한 분쟁도 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을 통해 상장회사와 감사인간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부당행위 발생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정감사 품질제고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외부감사대상



상장회사는 지난 2017년 2167곳에서 2021년 2430곳으로 늘었다. 지정 감사를 받는 상장회사도 같은기간 170곳에서 1253곳으로 늘어 전체 상장사의

51.6%를 차지했다.

문제는 지정감사를 받는 상장회사가 늘어난 만큼 감사보수, 시간, 서비스 등에 대한 분쟁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은 주로 자유 선임시 원활했던 회사와 감사인 간 외부감사 내용에 대한 협상조정이 감사인을 지정하면서부터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도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 애로사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한다. 지난 2019년부터 금융당국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감사보수에 대

해 집중점검을 해왔지만 점검시기가 늦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낮다는 판단에서다.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에는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과 관련한 회사와 지정감사인간의 의무사항 ▲지정감사인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요구 및 제3자 검증요구 행위 제한 ▲지정감사인 디지털 포렌식(회계부정조사)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등이 담겼다.

신고센터를 확대해 감사인에 대한 제재절차도 신속히 처리한다. 지난 2019년부터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해 과다한 감사 보수요구에 대한 조정 및 감독을 실시해왔지만 제재절차가 길어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서다.

앞으로는 상장회사 신고후 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한다. 또 센터를 확대해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

규준'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사회가 신속히 조정 처리할 계획이다.

전·당기 감사인 의견의 조율이 가능하도록 협의회 명칭을 '전기 오류수정 협의회'에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로 변경한다. 또 협의회 참여 외부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외부위원 5명은 한공회 감리총괄위원장 및 회계연구위원장과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산업별 회계전문가 2명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감사계약이 체결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했는데, 이 때문에 지정가사인이 개별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이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근거를 적절히 문서화했다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준감사시간의 법적성격과 감사인 지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부해시장의 오인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국내 3분기 자동차 생산 13년 만에 '최저'

반도체 대란 심화 영향

올해 3분기(7~9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올해 3분기 생산량은 총 76만1975대로 잠정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 92만1583대를 만든 지난해 3분기보다 20.9%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던 2008년(76만121대) 이후 1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월별로는 ▲7월 29만7589대 ▲8월 23만4963대 ▲9월 22만9423대(잠정) 순으로 생산량이 줄고 있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전년 대비 11.2% 적은 350만7000대를 생산하는데 그쳤으나, 올해 들어 반도체 품귀 현상에도 생산량이 회복세를 나타내며 ▲1분기(1~3월) 90만8848대 ▲2분기(4~6월) 90만5699대를 각각 생산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동남아시아 지역 코로나19확산 여파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심화하면서 생산 부진이 다시 심화되는 모습이다.

올해 3분기 완성차 생산량을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가 35만209대를 생산해 지난해 3분기(41만5992대) 대비 15.8% 줄었다. 기아차는 3분기에 32만1734대를 생산하며 지난해(34만4212대)보다 6.5% 감소했다.

/양성운 기자 ysw@